

# “빛가람혁신도시, 전남광주 상생·균형 출발점”

### 민형배 당선 후 첫 방문은 ‘켄텍’...에너지·AI 산업 모색 인수위 나주에 설치...당선중 교부식선 ‘시민선택’ 강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이 당선 후 첫 공식 행보로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를 찾아, 에너지 수도 비전을 논의했다.

민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도 나주에 두기로 해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단계부터 광주와 전남의 상생·균형 메시지를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민 당선인은 4일 오후 켄텍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 글로벌 기업 유치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민 당선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산업 발전 전략과 글로벌 기업 유치 방향을 설명하고, 에너지 분야 전문기술과 지역 전력망 구축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광주의 인공지능(AI)·첨단기술을 결합해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점검했다.

100원 전기, 중앙직류배전(MVDC) 기반 지역전력망, RE100(재생에너지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인공지능(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유치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민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TV토론회에서 당선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방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인수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인수

위 때부터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곧 출범하게 될 인수위는 나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선 직후 첫 방문지와 인수위 장소를 모두 나주로 정한 것은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광주 중심 또는 전남 소외 논란을 차단하고, 공동혁신도시를 전남광주 상생의 상징 공간으로 내세우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빛가람혁신도시는 민 당선인이 전남광주 상생과 협력의 대표적 성과이자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꼽아온 곳이다.

민 당선인은 빛가람혁신도시에 대해 “공동혁신도시라는 전남과 광주의 결단이 한국전력 이전과 에너지공과대학 설립으로 이어진 대표적 상생 사례”라며 “통합과 협력이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평가해 왔다.

민 당선인은 앞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리는 당선중 교부식에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민 당선인은 “영광스러운 당선증을 받았다”며 “이 한 장의 당선증 안에는 특별 시민 여러분의 선택과 기대, 그리고 명령이 모두 담겨 있다. 그 무게를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이 결정하면 행정이 따르는 시민주권정부를 세우고, 시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통합특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산화 기자 gback@gwangnam.co.kr



4일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에서 열린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 글로벌 기업 유치 정책간담회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가 이뤄지고 있다.

## 김대중 전남교육감 직무 복귀...통합교육청 출범 준비

### 교육부, 오늘 통합추진 보고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교육감에 당선된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4일 곧장 직무에 복귀해 통합 교육청 출범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전남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정책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일 출범하

는 통합 교육청의 조직, 인사, 자치법규, 교육과정, 재정 등 분야별 상황을 논의했다.

김 교육감은 출범 초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직·인사 분야는 통합 초기 안정적인 출범에 무게를 두고 중장기 관할 구역별 체계를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치법규 분야는 통합 과정에서 법적 미

비로 인한 행정 공백이나 제도 운영 혼란을 방지하고자 관련 법규 제·개정을 추진한다.

교육과정 분야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단일화 작업을 진행한다.

재정 분야는 통합 예산의 단일 편성 기준을 마련하고 결산·금고 운영의 연속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

청 출범은 행정 통합을 넘어 두 지역 교육이 힘을 모아 더 큰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라며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 통합교육청이 출범 첫날부터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남도교육청·광주시교육청과 함께 5일 도교육청에서 교육행정체제 통합 추진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통합교육청의 조직과 정보시스템, 자치법규 제정 등 분야별 출범 준비 상황, 그 외 후속 조치 사항 및 통합 주요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통합시장·통합교육감·기초단체장 당선인

전남광주특별통합시장	전남광주특별통합교육감	등구청장	서구청장	남구청장	북구청장
<b>민형배</b> 64·민 정당인 ★민형배(민) 이정현(국) 128만3402 18만9718	<b>김대중</b> 64 전남도교육감 ★김대중 장관호 68만285 46만5943	<b>임택</b> 62·민 등구청장 ★임택(민) 김성환(혁) 2만8586 2만3934	<b>김이강</b> 54·민 서구청장 ★김이강(민) 노관규(무) 7만1290 6만2040	<b>김병내</b> 53·민 남구청장 ★김병내(민) 김덕수(혁) 3만2224 4046	<b>신수정</b> 53·민 정당인 ★신수정(민) 김주업(진) 14만8312 2만4932
광산구청장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나주시장	광양시장
<b>박병규</b> 59·민 광산구청장 ★박병규(민) 정희성(진) 13만3709 3만1483	<b>강성희</b> 58·민 정당인 ★강성희(민) 박용두(혁) 1만2678 5912	<b>서영학</b> 55·민 행정사 ★서영학(민) 명정환(혁) 7만2571 1만6147	<b>손준모</b> 56·민 변호사 ★손준모(민) 노관규(무) 7만7767 4만7743	<b>윤병태</b> 65·민 나주시장 ★윤병태(민) 김덕수(혁) 4만2901 1만6689	<b>박성현</b> 60·무 교수 ★박성현(무) 정인화(민) 4만154 3만7074
담양군수	곡성군수	구례군수	고흥군수	보성군수	화순군수
<b>박종원</b> 57·민 전남도의원 ★박종원(민) 정철원(혁) 1만6079 1만1535	<b>조상래</b> 68·민 곡성군수 ★조상래(민) 박용두(혁) 1만2678 5912	<b>장길선</b> 65·민 구례군의원 ★장길선(민) 정현태(무) 6914 4896	<b>공영민</b> 72·민 고흥군수 ★공영민(민) 류봉진(무) 3만2224 4046	<b>김철우</b> 61·민 보성군수 ★김철우(민) 윤영주(무) 1만5145 9854	<b>임지락</b> 62·민 정당인 ★임지락(민) 김희수(무) 2만1604 7041
장흥군수	강진군수	해남군수	영암군수	무안군수	함평군수
<b>사순문</b> 69·혁 정당인 ★사순문(혁) 김성(민) 1만1349 1만1101	<b>강진원</b> 66·무 강진군수 ★강진원(무) 차영수(민) 1만2584 8914	<b>명현관</b> 63·민 해남군수 ★명현관(민) 박지원(무) 2만9509 6287	<b>우승희</b> 52·민 영암군수 ★우승희(민) 최영철(혁) 1만9446 8916	<b>김산</b> 68·민 무안군수 ★김산(민) 정영덕(무) 2만7383 2만1618	<b>이남오</b> 54·민 함평군의원 ★이남오(민) 이윤행(혁) 1만127 9494
영광군수	장성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	표보는법
<b>장세일</b> 62·민 영광군수 ★장세일(민) 이석하(진) 1만6594 8653	<b>김한중</b> 72·민 장성군수 ★김한중(민) 김왕근(혁) 1만7422 7803	<b>김신</b> 63·무 자영업 ★김신(무) 우홍섭(민) 1만5675 1만4885	<b>이재각</b> 65·민 정당인 ★이재각(민) 김희수(무) 9967 9860	<b>김태성</b> 60·혁 정당인 ★김태성(혁) 박우량(민) 1만5546 1만4376	<b>이름</b> 나이·정당 ▲정당명 약칭·다름이 만우당·민·국민의힘· 국·조국혁신당·혁·진 보당·진·무소속·무 직업 ★이름(정당) 득표수

## ‘무소속 돌풍’ 화제의 당선인



김신 완도군수 당선인이 당선 후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 김신, 3전4기 도전 끝 완도군수 당선 엇치락 뒤치락 손에 땀을 쥐게 한 박빙 승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도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김신(63) 후보가 3전4기 도전 끝에 승리를 따내며 이번 선거 최대 이변을 연출했다.

현 신우철 완도군수가 3선 제하로 ‘무소공신’이 된 완도군수 자리를 두고 펼쳐진 불꽃 튀는 경쟁에서 군민들은 결국 고향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정치인’을 선택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개표 결과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51.29%를 획득해 민주당 우홍섭 후보(48.70%)를 790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김신 당선인은 네 번째 도전 끝에 군민의 선택을 받았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39살의 젊은 나이로 완도군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8년간 의정활동을 펼치며 ‘실무형 정치인’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3차례 완도군수 선거에 도전했으나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김 당선인의 이번 선거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 당선인은 공표용 여론조사에서 졸권 선두를 달렸으나, 민주당 전남도당이 2016년 과거 탈당 전력을 문세 삼아 감점을 부여하자 중앙당에 해명 자료를 제출하고 공천심사의 부당성을 강하게 제기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김 당선인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군민들로부터 직접 심판을 받겠다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해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의 영광을 안게 됐다.

김 당선인은 “현재 완도의 지역경제는 개청 이래 가장 위험한 안구 소멸과 경제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기업 민자 유치를 통한 연 1만 규모의 전북 가판단지 조성, 전북 가격 최저가 보장제 도입 등 수산 클러스터를 구축해 어가 소득을 30% 이상 끌어 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원도=김해국 기자 knk1831@